

순천만정원 입장객 778만명... 에버랜드 제쳤다

2023 주요 관광지 입장객 집계...순천만 '전국 1위 관광지' 영예
광주 광주과학관 인기...전남, 관광지별 관광객 유치전략 세워야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가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경복궁 등 전국 유명 테마파크나 수도권 관광지를 모두 제치고 지난 한 해 동안 입장객이 가장 많은 관광지로 꼽혔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전국 1위 관광지'의 영예를 안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전남지역 관광 지점 수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데 비해 관광객 수는 비슷한 규모여서, 방문객을 늘리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752개 주요 관광지 입장객을 집계한 결과,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에 778만1426명이 방문해 작년 한 해 입장객이 가장 많이 몰린 관광지로 나타났다.

2022년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 입장객은 267만3152명으로 전국 9위 수준이었지만 1년 만에 510만여 명이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열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해 전남에서 열린 전국체전과 국제 수목비엔날레 등을 보기 위해 찾은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를 방문했을 것으로 보인다.

제작년 전국 1위 방문객을 기록했던 경기 용인 에버랜드는 작년에 588만1640명이 찾아 2위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 고양 킨텍스(584만252명), 종로 경복궁(557만9905명), 잠실 롯데월드(519만2688명), 용산 국립중앙박물관(417만9508명) 등의 순이었다.

광주에서는 국립광주과학관(83만6249명)과 무등산국립공원 중심사 차량 통제소(82만927명), 김대중컨벤션센터(76만192명), 무등산국립공원 원효지구(66만7278명), 국립광주박물관(43만7997명) 등이 인기 관광 지점으로 꼽혔다.

전남지역의 경우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에 이어 여수 엑스포해양공원(205만6814명), 광양 청매실농원(145만2239명), 여수 오동도(125만9458명), 여수 돌산공원(120만95명), 목포 해상

2023년 입장객 수 TOP 10

1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	778만1426명
2	경기 에버랜드	588만1640명
3	경기 KINTEX(한국국제전시장)	584만252명
4	서울 경복궁	557만9905명
5	서울 롯데월드	519만2688명
6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417만9508명
7	경북 강구항	382만1529명
8	대구 이월드	311만460명
9	서울 덕수궁	309만9577명
10	충북 도담삼봉	286만1605명

케이볼카(91만604명), 구례 지리산국립공원(81만9761명) 등이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지난 한 해 순천이 순천만정원을 기반으로 많은 방문객을 끌어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 평균 입장객 수는 타지역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면서 방문객 유입을 촉진하는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전남 내 관광 지점은 지난해 기준 481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입장객 수는 다른 지역 평균 입장객 수보다 적거나 비슷한 상황이며, 각 관광 지점별 관광객 유치 전략을 별도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주요 관광지 입장객 통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자료로, 지역별 대표 관광지 등이 지점으로 등록돼 있다.

개별 관광지에 대한 입장객 집계 자료인 만큼 지방자치단체나 특정 지역 관광객의 총량과는 차이가 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가 연간 입장객 778만명을 달성하면서 에버랜드와 롯데월드를 제치고 전국 입장객 최다 관광지로 뽑혔다. 낮 최고기온 30도를 넘는 여름 날씨를 보인 9일 오후 관광객들이 순천만정원을 관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의협, 18일 전면 휴진 ... “의대생 포함 총궐기대회”

“회원 73.5%가 단체행동 참여”
정부 “불법 집단행동 깊은 유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함께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관련기사 6면> 의협은 9일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한 뒤, 단체행동을 위한 전 회원 온라인 투표결과에 따라 오는 18일 전면휴진과 총궐기대회 개최를 발표했다.

지난 4~7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의협 총유권자 수 11만1861명 중 7만800명이 참여했다.

투표결과 ‘강력한 투쟁을 지지하겠다’는 첫 번째 질문에는 90.6%가 찬성했고,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질문에는 73.5%가 찬성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투쟁 선포문에서 “정

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법외로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임회장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통해 전국 의사 14만 회원은 물론, 의대생과 학부모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며 “총궐기대회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대병원 의대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강행하기로 한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이라며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는 “지금도 절대다수 의사 선생님은 환자 곁을 지키며, 조용히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선생님도 적지 않다. 국민과 환자는 이분들의 편”이라며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 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해 모든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물물선에 확성기 방송 '남북 갈등' 고조 ▶2면

KIA 광도규 '맞으면서 크다' ▶18면

호남의 농정·원림 - 장성 관수정 ▶22면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문명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전남!

공공주도 주민참여 개발, 이익공유 모델 확산으로 글로벌 해상풍력 허브로 도약하겠습니다!

공공주도 해상풍력 개발사업 확산

계획 용량 **30GW**

신안	11GW (8.2GW)
영광	6.6GW
여수	5.5GW
진도	3.2GW
고흥	1.2GW
완도	1.2GW
해남	0.9GW

신안 진적화단지 지정, 공공주도 단지개발로 세계적 발전단지 조성

주민참여 이익공유 모델 마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개발사업 이익공유 및 주민수용성 확보

해상풍력 산업클러스터 조성

목포신항, 해남 화원산단 연계 부품업체, 연관기업 집적화 국내 최대 해상풍력 공급망 구축

전문인력 양성·지방소멸 극복

산·학·관 협력 맞춤형 인력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